正論으로 일관해온 이 시대의 巨人

——故 김성식교수와의 인연을 회상하며

故 金成植교수

藥田 金成植선생님은 1986년 1월24일, 평소대로 원고를 쓰시다가 홀연 78세를 일기로 서거하였다. 세상에 이토록 깨끗하고 숭고한 최후가 또 얼마나 있을까. 선생님은 참으로 하늘이 내린 선비학자였다. 내가 선생님을 처음 뵈온 것은 1946년 고대에서의 첫 강의를 들은 때였으니 올해로 만 40년이 된다. 그사이 음으로 양으로 가까이서 훈도에 접함은 물론 근자 10여년은 한 직장 이웃방에서 조석으로 우러러 모시게 되었으니 진실로 크나큰 인연의 연속이었다. 또, 전공·지연·신앙·기타 인맥이 상당히 다른 조건 속에서 격동의 반평생을 옆에서 지켜본 점으로는 어쩌면 선생님을 좀더 객관적으로 대하는 약간 특별한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선생님은 일찌기 평남 平原에서 외독자로 태어나 평양에서 수학하고 일본 九州대학에 유학하여 서양사를 전공하셨다. 귀국후 모교인 숭실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고 이때 趙永植박사등 유위한 인재를 길렀으나 일제말기의 가혹한 탄압 아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학교의 폐쇄와 함께 교직도 그만두기에 이르렀다. 그리고는 1946년 고려대학에 봉직하게되면서 본격적으로 학문연구와 교육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는데 이때 처음 개설된 교양서양사 강좌를 듣는 행운을 얻었던 것이다.

당시 선생님은 30중반의 패기와 열의에 찬 강의로 단번에 학생들을 긴장시키고 압도하였다. 이 무렵 필자는 벌써 國史를 전공할량으로 법과에서 문과에 전입한터였으므로 玄相允선생의 유학사강의에 빠져 있었는데 藥田선생의 정확무비한 강의진행과 밀도 짙은 열강에 사로잡혀 한학기를 뜻깊게 보낼 수 있었다.

그후 서양중세·근세·특강 등을 통하여 「大学史」「独逸学生運動史」 등을 수강하게 되었는데 그때 강의안이 그대로 출판에 회부되어 지금도 행세되고있는 것을 보면 그정도를 족히알만하다. 이때의열과성의가 철저한 강의를는 소위 특급 명문대학에서도 도저히 바라기어려운 것이었다. 4학년이 되었을때 6·25가 터지고 모두 피난살이를 하다가 1954년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지만 전공상자연히 긴히 뵈을 기회가 적어졌다. 그러나 특정행사나 명절인사로 동창·사제간의 유대는 전국에 유별난 것이었고 그때마다 접하게 되는 선생님의 명륜동 바깥 사랑채에서의 엄숙단아한 서재생활모습은 못제자들의 심금을 사로잡는 이상적인 표본, 그것이었다. 물론 공적으로 종종 국사·동양사·서양사 분야간에 이해의 상충이 있어 후대에까지 중대한영향을 미쳤던 쓴 기억도 없지는 않다

선생님의 그 냉엄하리만큼깔끔하고 철저한 합리적 생활 방식은 평소에 부정확을 못보시시고 붙의 비민주등에 대해서는 과감한비판과 항거를 서슴지않았다. 4·19를 전후한 민주붕기때에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붓으로 몸으로 떨쳐 나섰으니, 아! 당시 교수·학생들의 그청순하고 늠름하고 장한 모습은 영원히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하고도 남음이 있는것이다.

일제 신사참배 거부로 해직당해 한평생 선비정신으로 초지일관

선생님은 이러한 구국운동을 적극 계속하시다가 결국 1960년 후반 한때 교단에서 추방되는 수난을 겪게도되었다. 당시 선생님을 위시한 지사들의 의로운투쟁은 외롭기짝이없는 것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생동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것이다.

1973년, 65세 정년과함께 경희대에 초빙되어 오셨는데 우리 교수회관에서 마련한 환영식에서 그동안 서양사교수로서 계목역할이나 연구활동 모두 부진했으므로 이곳에서 그것을 보완해 갈 작정이라고 토로한 대목은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그후 말씀대로 선생님은 평일·휴일 없이 매일 저녁 늦게까지 놀라운 정진을 계속하였다. 8순에 가깝도록 얼굴에 주름 하나 없는 건강을 당신 스스로는 철면피인 까닭이라고 하셨지만 참으로 변함없는健筆은 아무래도 健康에 기초가있었던것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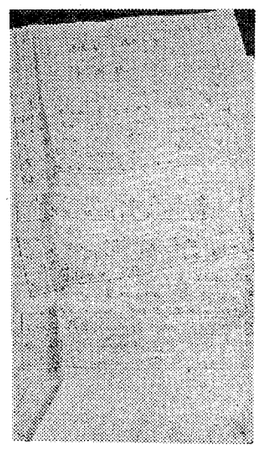
노년기의 원숙한 人生살이또한 잊을수 없는 산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平교수의 행복을 찬양하는 인생철학에서부터 응달가게에서의 과일 고르기, 식후 단것의 별미담 등등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왕년의 그 특유한 쌀쌀함은 다정 온후 함으로 부르익어 재학생들에게는 특별교수 졸업생에게는 인자한 단골 주례자였고 후진교수들에게는 인생고문님이셨다.

동아일보나 종합 월간지를통한 선생님의 건필은 천하가 다아는 바요, 특히 대쪽같은 선비정신은 도하 신문이 한결같이 찬양한 나머지이기에 여기서는 생활모습을 중심으로 편편상을 엮는데 그쳤다. 삼가선생님의 명복을 빌 따름이다.

박 성 봉 <사학과교수>

◇故 김성식교수의 미완성 원고

이 글은 故김성식 교수의 유고Ⅰ「도덕정치와권력정치」와 유고Ⅱ「과거를 기억하세요」를 엮은것으로 故人의 長子 世昌씨를 통해 입수한 것이다. <편집자의 말>



유고Ⅰ

정치는 正治이어야 한다

독자 중에는 위의 제목을 보고 좀 따분한 이야기가 반복되겠구나 하고 시큰둥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를 다시 論하지 않을 수 없게 된 韓國의 現況을 감안한다면 그런대로 읽을거리가되지 않겠는가고 여겨져 몇가지 이야기를 적어보는 바다.

政治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못된다. 独不將軍이란 말이 뜻하는 바와 같이 아무리 出衆한 인간이라도모든 것을 혼자서 할 수는 없다. 옛날에는 自給自足이란 말이 통했었지만 現代는 他給他足도되고 自給他足도 되는 세상이다. 그만치 分業化가 된 世上이다. 더구나 政治란 일은 남이 도와주어야 한다. 손발이 맞아야 잘된다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다.

정치는 正治라는 것을 老子도孔子도 모두 定義했다. 正治가 되려면 道德的 정치가 효과적이냐 아니면 權力型정치가 효과적이냐가 문제가 된다. 道德政治도 愛當할 때가 있는 것이다. 다만 그 당시 국민의 文化程度 여하에 따라 兩者類型의 利害得失이 따져질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政治의 主權을 장악한 자를 도와주는, 말하자면 부하들이 出衆한 사람이어야하는데 道德政治를 하면 어떠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겨진다.

유고Ⅱ

돈이 많으면 과거 가난했을 때를 기억하고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을 할 것이요. 돈이 없으면 과거 가난했을 때를 생각하고 참고 견디며 다시금 노력할 것을 결심하라. 그것이 곧질긴 참 삶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필리핀…국제역학속의 두 정부

——「마르코스」 당선의 뒤안길

2월7일 실시된 필리핀대통령선거는 국민의회의 당선선포에 따라 「마르코스」대통령의 승리로 선거법상의 결론은 보았으나 정치적으로는 「마르코스」와 「코라손」 두 대통령을 갖게 됐다.

「코라손」야당후보는 이번 선거가 부정으로 인해 승복할 수 없는 것이며 국민들에게 불복종운동을 전개할것을 호소하고 있다. 또 미국등 외국에서도 「마르코스」정부에 대해 이번 선거의 부정성을 통렬히 비난하고 있다.

이같은 국내외의 여건에도불구, 「마르코스」대통령은25일제4기임기를 시작한다. 국내의경제악화 공산반군의 세력확장, 국민들의 정부불신과 함께 미국의 마르코스정부비난 국제적인 고립등으로 필리핀의 앞날은 한치앞을 예측할수 없는 상황이다.

Ⅰ. 조기대통령선거의 배경

2·7선거는 원래 87년6월로 예정되어 있었다. 선거가 앞당겨지게된 것은 미상원외교위원회에서 필리핀정세에 관한정보보고가 지난해 가을에 있고나서였다.

당시 정보보고는 필리핀을 이대로 방치하면 2~5년내에 공산당의 전투조직인 신인민군(NPA)이 세력을 확장, 정부군과 내전상태에 돌입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필리핀에 해외군사기지로는 가장큰 수빅만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를 갖고 있는 미국을 불안케 했다.

여기에는 국내의 불안을 조기선거를 통해 일소하려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계산도 함께 작용했다.

조기선거가 「미국의 압력에 의해 실시되게 되었다는」 점은 선거전후를 통해서 미국의 태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까닭으로 남는다.

Ⅱ. 선거

필리핀의 조기 대통령선거는 필리핀사상 유례없는 부정·폭력선거로 기록됐다. 선거기간중 사망자가 1백50여명에 달했으며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 투표자명부에 기록돼 있는 「유령표」·한 유권자가 여러 투표소를 돌면서 표를 찍는 「飛票」·25~50페소 (1만~2만원)와 쌀 한 부대를 주고 표를 사는 「買票」등이 남무했다.

더욱이 개표과정에서는 개표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COMELEC)와 민간선거감시기구인 자유선거국민운동(NAMFREL)의 집계가 서로달라 선거결과에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졌으며 이 두기관의 집계를 모두 무시하고 「마르코스」 대통령의 신사회운동당 (KBL)이 장악하고 있는 국민의회에서 선거 결과를 「마르코스」 대통령의 승리로 서둘러 선포함으로써 부정선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됐다.

Ⅲ. 「마르코스」정부의 문제

우선 야당이 이번 선거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점이다. 83년8월 미국에서 귀국하던 반체제지도자 「베니그노·아키노」 전 상원의원이 마닐라공항에서 피살된 직후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반정부운동은 지금까지상당한 정도로 뿌리를 내렸다.

이번의 불복종운동은 이러한 바탕하에서 「마르코스」 정부에 상당한위협을 줄것으로보인다.

이와함께 신인민군(NPA)의 활동강화가 필리핀공산화위협을 더 해줄것으로 보인다. 신인민군은 그동안 선거보이코트 자세를 취하면서 「마르코스」 대통령이 승리하는것을 방관해왔다. 「마르코스」대통령의 부정선거를 자신들의 세력확장을 위한 근거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국내적인 문제와 함께 필리핀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미국은 필리핀을 스페인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해방시킨 나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필리핀 국민들로 볼때 주인만 바뀌었을뿐 식민주의의 계속이었다.

2차대전후 필리핀이 자주국가로 독립하고 나서도 미국의 신식민지주의는 계속되어왔다. 그것은 필리핀의 역사를 훑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Ⅳ. 필리핀과 미국

일본의 식민지에서 필리핀을 독립시킨 미국은 친미정권을 유지해 오면서 수빅만해군기지와 클라크공군기지를 유지해왔다.

53년 신식민주의지배를 반대하는 공산세력인 후크단이 전국적으로 세력을 확장하자 「막사이사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후크단을 섬멸하고 친미노선을 강화했다. 당시 공산화의 위협은 극히 심각한 것이었고 이를 효과적으로 분쇄하기 위해 「막사이사이」가 선택된 것이다.

「막사이사이」는 2차대전중 일본이 미군을 쫓아내고 필리핀에 진주할 당시 버스영업소에 근무하고 있었다. 철수하는 미군에게 버스를 제공한 것이 인연이 돼 일본점령 당시 미군의 지원을 받는 게릴라 리더로서 활약했다.

「맥아더」 사령관이 필리핀을 재탈환하자 「막사이사이」는 게릴라리더로 인정을 받아 후에 이를 기반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후크단으로 골머리를 앓고있던 미국은 이를 섬멸하기 위한 적임자로 「막사이사이」를 지목하고 그를 국방장관에 앉힌다. 후크단을 효과적으로 섬멸한 「막사이사이」는 미국의 신임을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다. 선거당시 「막사이사이」의 패배시군부쿠데타를 주도할 목적으로 미7함대 소속 함정들이 마닐라만에 집결해 있었다.

이같은 미국의 지원으로 「막사이사이」는 「수입대통령」이라 불리웠다.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49년에 당선된 「키리나」 대통령이 미국방문시 미의회에서 행한 연설에도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비록 동양의 황색인종이지만 미국의 도움으로 생각이나 행동은 백인으로 바뀌었다. 우리 필리핀국민을 아시아인으로 생각치 말고 미국인과 같은 백인으로서 미국의 우방으로 대접해 달라』

이같은 배경에서 볼때 이번 선거에서 미국이 얼마만한 영향을 미쳤는가는 쉽게 짐작할 수있다.

미국이 선거전에 필리핀을 상대로 취한 태도는 단호한 것이었다. 어떠한 부정선거도 용납되지 않을것이며 필리핀경제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원조중단을 초래할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민간선거감시 기구인 자유선거국민운동이 합법적으로 투개표소에 참관하게 됐으며 자유선거국민운동의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진행을 감시토록 했다.

또 미국은 선거기간중 「리처드·루거」 미상원외교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선거참관인단을 필리핀에 파견 선거를 감시토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단호한 미국의 태도는 모든 선거시스템이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돼있어 부정선거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당선될 수 밖에 없음을 개표과정에서 파악하자 돌변했다.

개표가 진행중인 10일 「레이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필리핀에 강력한 2개의 정당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고 말함으로서 「마르코스」 대통령의 당선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이어 국무성에서도 미군기지는 그 어느것보다도 중요하며 절대포기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미국의 태도 돌변에 미의회와 언론이 들고 일어났다. 뉴욕타임즈지와 워싱턴포스트지는 「레이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필리핀의 민주주의를 팔아먹는 행위』 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의회에서도 필리핀원조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제출되는등 미정부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제기 됐다.

그러나 미국은 미군기지를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는 5.6년의 시간과 40~50억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것으로 「아니티지」 미국방차관도 『이란-베트남-니카라과등에서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 할수 없다. 이를 되풀이 하기에는 시간과 돈이 부족하다』고 말함으로서 기지고수의 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기지철수의 가능성을 비치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해 필리핀에 적당한 압력을 가해 미국및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시키고 필리핀 정정을 수습하자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필리핀의 앞날은 필리핀국민이 아닌 미국의 태도에 의해 결정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다.

김 상 도
<중앙일보 외신부 기자>

군사적 이익에 희생된 개도국의 민주주의

시론

"政治는 民意로만 거듭난다"

朔風

石油価가 내리고 살림의 주름이 다소 펴져도 국민들의 가슴은 춥다. 모처럼맞은 엔高, 原油가격 인하의 3低時代. 침체했던 景氣가 봄기지개를 켜고 따라서 국민들의 얼굴에도 밝은 웃음꽃이 피어나야 하는데, 경제의 밝은 흐름을 타지 못하는 政街의 암운에 국민들은 어두워가는 가슴을 어쩌지 못한다.

改憲 서명으로 비롯된 이른바 서명政局.

国民과 政治 모두의 봄을 앗아간 이난기류를 접하며 갖는 씁쓰레한 감회는 우선 「破局」의 단어로 모아질수 있다.

여러차례 위태한 고비를 아슬아슬하게 넘기다 끝내 다다른 낭떨어지. 그곳에선 쫓는 자나 쫓기는자 모두 초강경의 최후수단에 의지할수밖에 없다.

한걸음이라도 물러서면 어느 쪽이라도 한쪽은 파멸하게 된다는 급박감.

이러한 긴장감이 여야모두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은 현체제에서 힘을 가진 정부 여당이 경찰권을 발동해 물리적으로 野를 압박하고 있다. 야측의원 전원이 가택에 연금되고 야당내의 중앙상위까지 막아내는 극히 이례적인 사건까지 벌어지기도했다.

새삼 따져볼필요도 없이 이러한 물리적 압박이며 対野제재조치가 모든국민들이 납득할만한 法的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法治」를 내세우는 정부 여당이法의字句 하나에 얽매여 지나치게 아전인수격의 논리를내세우고 있다는 느낌을지울수 없다.

1980년초 정의를 내세우고 출범한民正党의 청색 깃발이 많은사건과 세월속에 거듭퇴색하고 있지않는가 하는 국민의우려역시 어렵지않게 들을수 있다.

어렵게 지켜온「政治圈내에서의 政治」란 숱한 노력이 이번 서명파동에대한 강력대응으로 일시에 무너져 버리는 허탈감을 与 역시 깊이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新民党측의 자세에도 꼬집힐 만한 문제는 있다.

야당초의 서명운동 전개가 新民党자체의 자발적 의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점.

서명운동의 전개에 앞서 対与협상의 창구를 두고 비장하던 공공연한 최후카드를 일부 在野에 의해 선수를 빼앗겨 버리자, 등떠밀린듯 서명을 전개하고 또 선수를 빼앗긴 것에 대한 만회라도 하려는듯 무모한 큰 소리로 일관하고 있다.

그들 스스로 民意에 의해 비롯됐다는 제1野党으로서의 큰 모습은 절대아닌, 선뜻 신뢰할수 없는 옹졸함과 무기력을 다시 한번 내보인 셈이 되고 말았다.

정부-여당이며 野에게 새삼 묻고 싶은 것은, 또한 새삼 엄중히 확인시킬 것은 과연 정치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치는 정부나 일개 정당들에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모든 것이 民에서 비롯되고 民에서 선택되며 民으로하여 거듭나는 것이다.

하나의 정당이 내세우는 어떠한 이념들도 국민에 의해 여과되고 비로소 定立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땅의 政治人들은 이미 오래전에 망각하고있는것은아닌지.

난기류의 政治현장에선 기자들이 경찰에 못매를 맞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국민의 보고 느끼고 생각할 권리를 상징하는 기자의 수모를 보면서 『아! 참으로 이땅의 정치는 어느 곳에 있는가』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네 정치며 삶의 현장』이라는 분노와 좌절을 아프게 느낀 것도 사실이다. <누리>

통역,英·日 Guide
◎ 外國語 高級化의 지름길 (문법, 독해, 작문, 청취, 회화 立体教育)
◎ 在学中자격취득·아르바이트추천
◎ 전망밝은 高所得 새人氣 職種
◎ 國際社会進出의 実現
= 高級通譯要員專門教育機関 =
(大学生 特典)
交通部·서울市指定
現代觀光研修院
남영동 금성극장옆 중소기업은행빌딩
715-0555, 716-0555, 713-0005

기초영어회화
開講: 毎月 1 日(수시접수)
(3개월 코스)
대상: 대학생, 유함준비생 이민예정자, 취업준비자 각종 시험 대비, 직장인 새벽, 오전, 오후, 저녁반
공개강의: 첫째 둘째,토요일 오후 3시
담당강사: 곽영일 선생
종로 2 가 종로서점뒤 734-2442 732-9226
시사영어학원

独文化學院
●초·중·고급문법
●초·중·고급해석
●속성반·유학시험및 대학원시험 대비반
●청취력코스
●Der spiegel
●독일인회화 (G. Ⅰ. Ⅱ. Ⅲ. Ⅳ)(3월개강)
▲독일유학안내
※전철통학권 발급
●을지로 3가 전철역과 2가 네거리사이
개강: 3월 3일(월)
☎ 267—3569

(株)時事英語社 직영
현대 시사영어사 외국어 학원
〈旧 현대 외국어학원〉
●TIME, TOEFL, AFKN 청취, Word Power, Vocabulary, L.C., 성문 綜合英語, 英語実力基礎, 英文読解, 英語順解, 英作文, 日本語, 中國語, 日本語会話, Screen英語
●韓人会話-(Speak-Along English 英語会話)
●美人会話-(New English Course 英語会話)
大学生·成人 英語·日語·中國語 수시등록
개강 월 일
파고다공원 정문 앞 (주)시사영어사 뒤 (273)4395~7·5081~2

GRE-GMAT 아카데미 TOEFL
開講: 毎月 1 日(수시접수)
(2개월 코스)
대상자: 유학준비생, 대학원 진학, 취업준비생, 각종 시험대비
GRE-GMAT: 본강좌는 국내에서 유독 당학원만이 개설 중임 강좌입니다.
새벽, 오전, 오후, 저녁반
담당강사: 유시일 선생
종로 2 가 종로서적뒤 734-2442 732-9226
시사영어학원

제23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23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응시자격
만20세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시험과목

제1차 시험		제 2 차 시 험
필수과목	특허법 (조약포함)	행정법, 민사소송법, 상품학, 산업디자인,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열역학, 화학야금, 물리야금,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섬유재료학, 방적공학, 건축구조학, 콘크리트및 철근콘크리트공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재배학원론, 발효공학중 2과목
	실용신안법 (조약포함)	
	의 장 법 (조약포함)	
	상 표 법 (조약포함)	
선택과목	영어, 독어, 불어, 일어중 1과목	

3.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다만, 선택과목(외국어)은 객관식 필기시험임
나.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다.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합격기준
제1차 시험및 제2차시험은 각각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으로 함.

5. 시험의 일부면제
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기간내에 일부 면제의 뜻을 밝혀 출원한 자에 한함.
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와 제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면제함.

6. 시험시행일자

구분	일시	과 목	장 소	합격자발표
1 차	7. 5 10:00	특허·상표·의장법 (각조약포함)	서울교육대학 (강남구 서초동 686)	8. 1
	7. 6 10:00	실용신안법 (조약포함), 외국어		
2 차	9. 2 09:30	전 과 목	특허청연수실	9. 30
3 차	10. 14 10:00	면 접	특허청연수실	10. 22

※합격자발표는 관보, 특허청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개별통지함.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및접수 : 86. 5. 20(화)~5. 31(토) 13:00 대한변리사회(공휴일제외)
나. 교 부 : 소정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지참한 자에 한하여 교부하되, 우편요청시는 수신인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가 기재된 반신용 규격봉투(우표첨부)를 동봉하여야 함.
다. 접 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수수료 1,000원에 해당하는 소액환과 반신용규격봉투(우표첨부)를 동봉하여야 함(접수 마감일자 소인분까지 유효함)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1통 : 특허청 소정양식
나. 사 진 2 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4㎝)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첨부함.
다. 수 수 료 : 1,000원을 국고수납은행(조흥은행역삼동지점, 한일은행서초동지점, 한국외환은행역삼동지점등)에 납부한 영수증.
※접수된 응시원서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함.
나. 시험중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도구 이외의 물품을 지참할 수 없음.
다. 시험중에는 흡연, 담화, 물품대여등 일체행위를 금하며, 일단 입실한자는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임의로 퇴장할 수 없음.
라. 제1차시험에 있어서 시험과목중 1과목이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타시험과목에 응시할 수 없음.
마. 시험에 관한 부정행위자, 관계규정위반자, 주의사항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한 자는 즉시 퇴장시키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함.

10. 기타 상세한 사항은 특허청 지도과 또는 대한변리사회로 문의하시기 바람.
○특허청 지도과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1 풍림빌딩, 전화 (교환)568—8150~64
○대한변리사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1 혜천빌딩 5층, 전화 568—8518, 8736.

특 허 청 장